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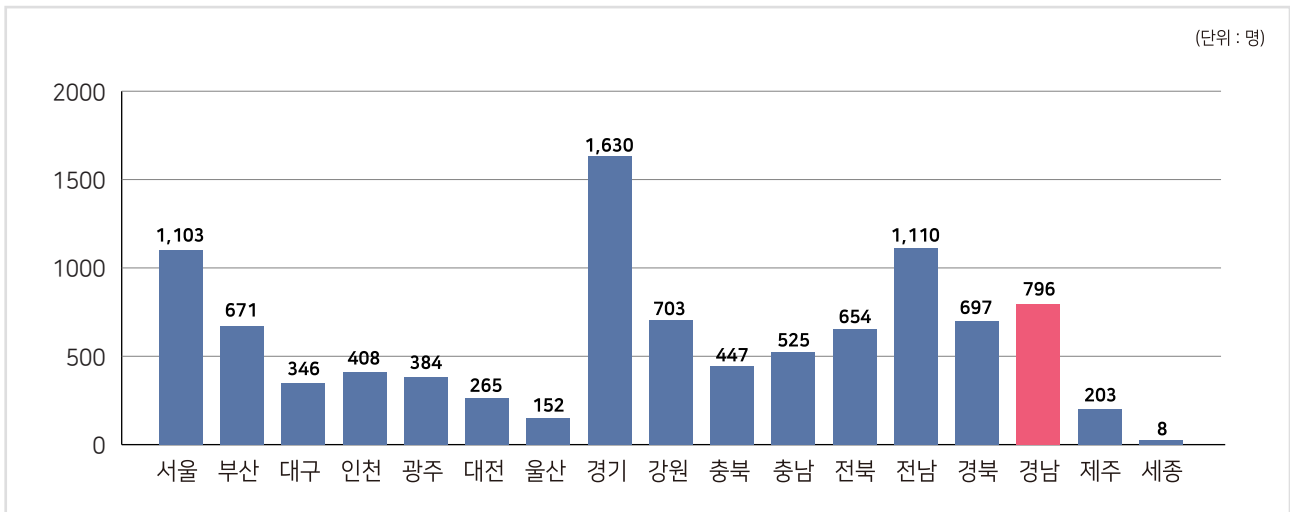


# 경남의 아동자립지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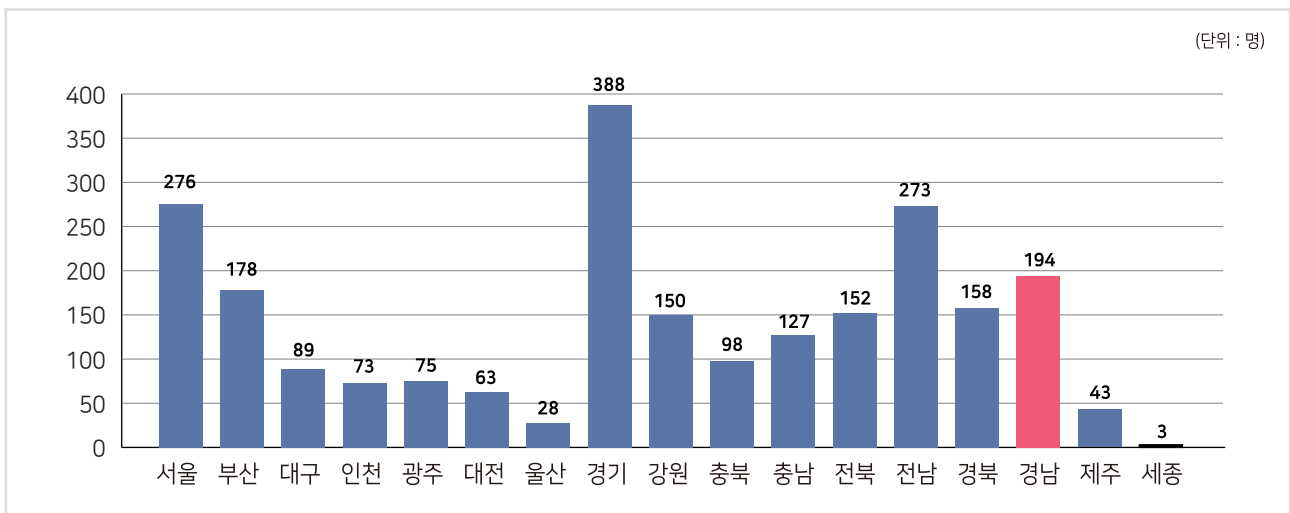
보건복지부의 「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」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과 경남 지역의 아동자립지원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비교함

## 1. 보호아동<sup>1)</sup> 및 자립준비청년<sup>2)</sup> 현황

☑ 2020년 전국의 보호아동수는 10,102명으로 이 중 경기도가 16.1%(1,630명), 전남 11.0%(1,110명), 서울이 10.9%(1,103명)임. **경남은 7.9%(796명)로 전국에서 4번째로 보호아동수가 많음**



< 그림 1 > 전국 및 경남 보호아동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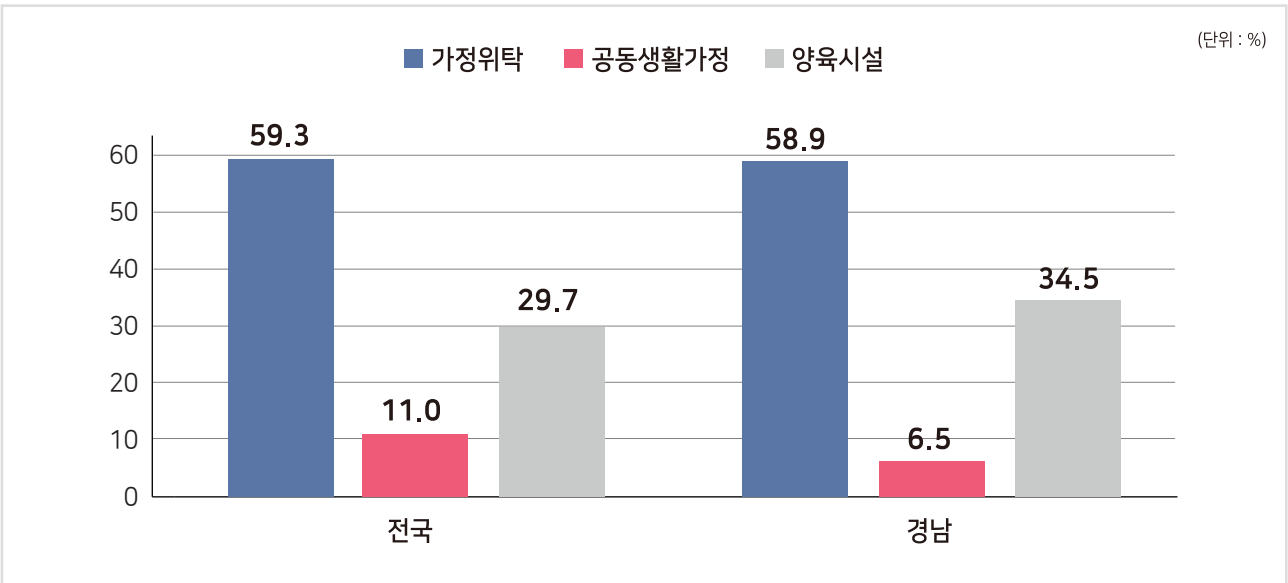


< 그림 2 > 전국 및 경남 자립준비청년수

1) 보호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(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)

2) 자립준비청년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만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청년을 말함(구 보호종료아동,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)

☑ 2020년 전국 보호종료아동은 2,368명으로 이 중 경기가 16.4%(388명)로 보호종료아동수가 가장 많고, 서울은 11.7%(276명), 전남 11.5%(273명), **경남 8.2%(194명)**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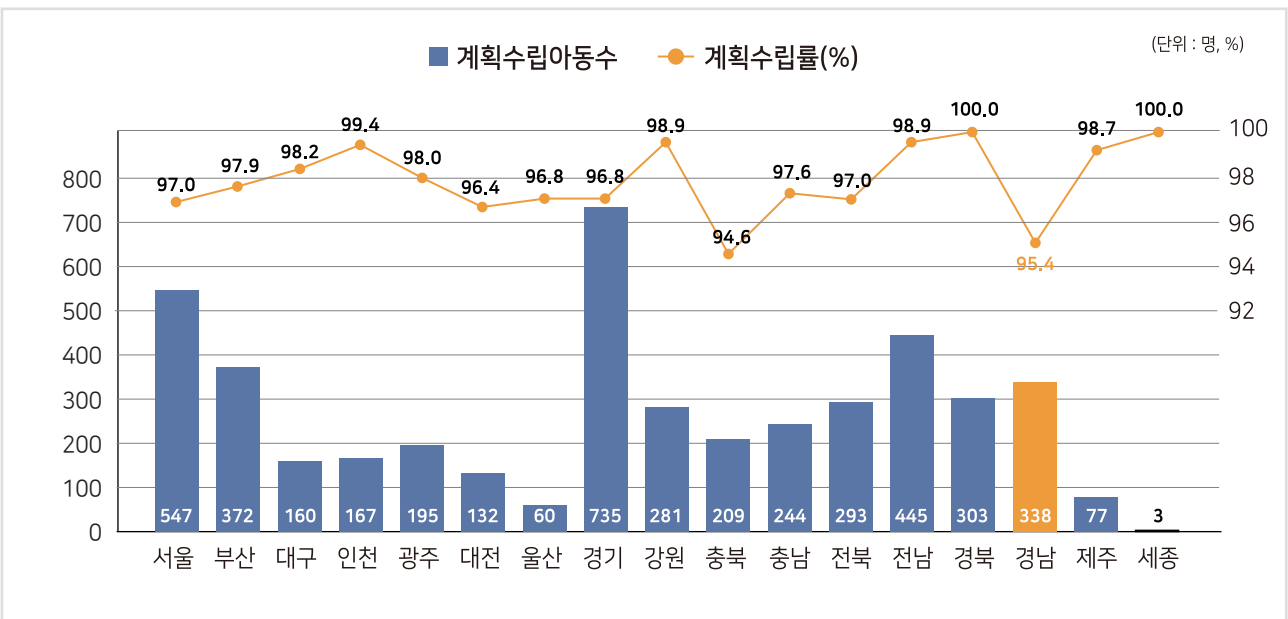


< 그림 3 > 전국 및 경남 보호아동 현황

☑ 2020년 전국 보호아동 중 가정위탁이 59.3%로 가장 많고, 양육시설이 29.7%, 공동생활가정이 11.0%로 나타남. 경남의 경우 보호아동 중 58.9%가 가정위탁, 34.5%는 양육시설, 6.5%는 공동생활가정인 것으로 확인됨

## 2. 계획수립아동<sup>3)</sup> 현황

☑ 계획수립아동 현황을 살펴보면, **경남은 338명**으로 경기(735명), 서울(547명), 전남(445명), 부산(372명) 다음으로 계획수립아동수가 많고, **계획수립률은 95.4%**로 충북(94.6%) 다음으로 계획수립률이 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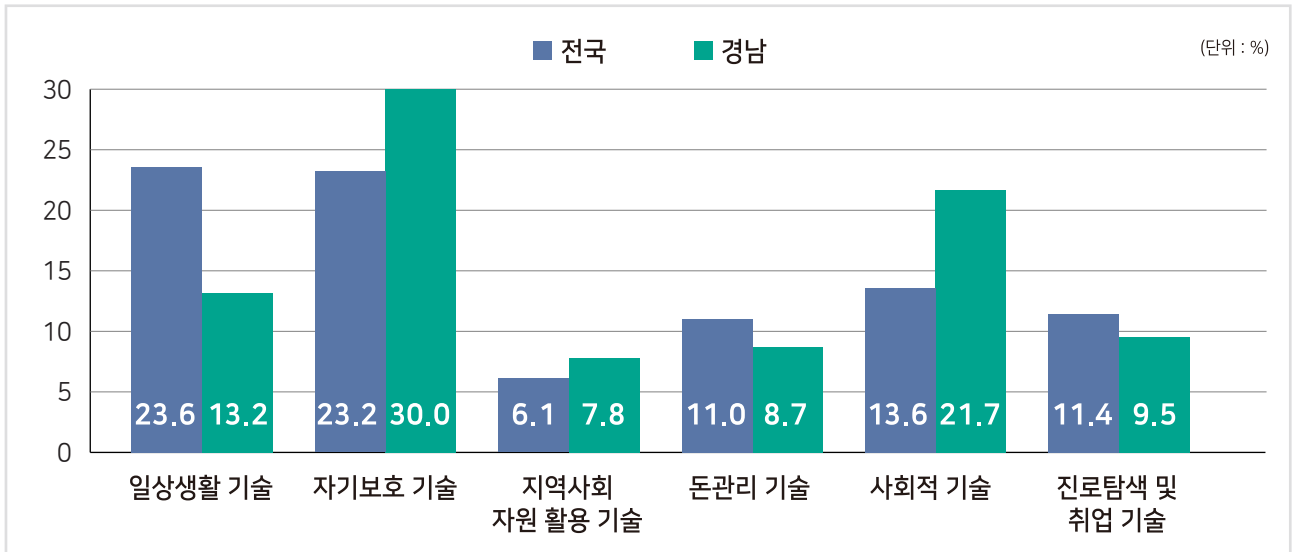


< 그림 4 > 전국 및 경남 계획수립아동수 및 계획수립률

3) 자원지원계획수립 시기는 만15세부터 보호종료 3개월 전까지로, 보장원의 장,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원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(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)

### 3. 자립준비프로그램 참여 현황

☑ 자립준비프로그램은 개별 아동별로 제공되며, 만15세 이상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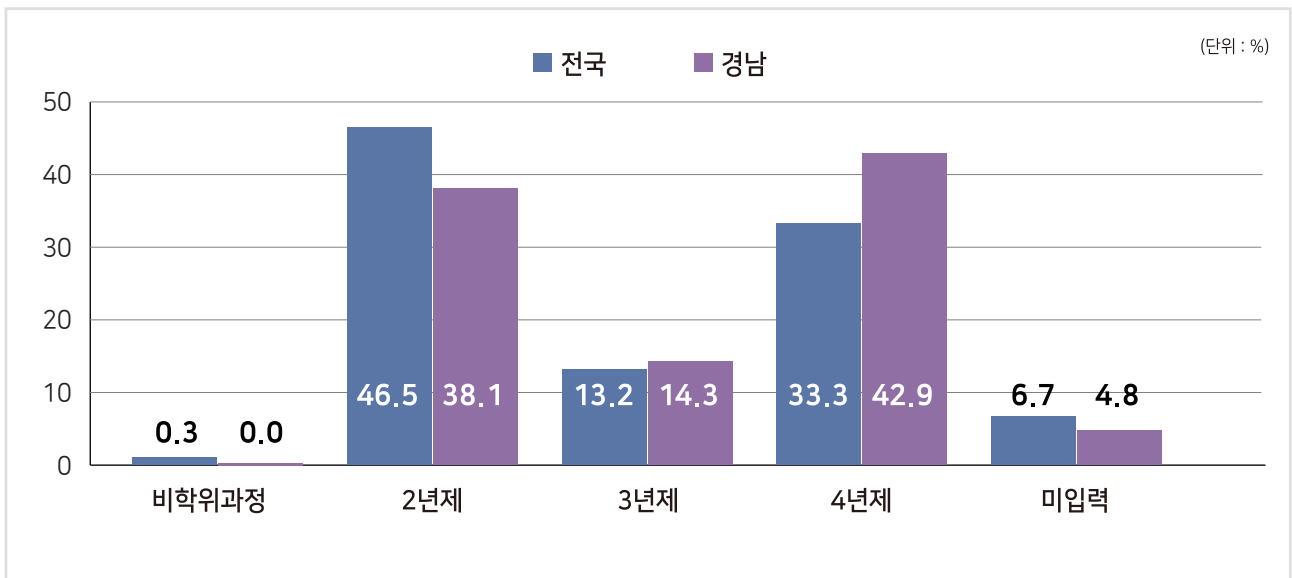


< 그림 5 > 전국 및 경남 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자립프로그램 참여 현황

☑ 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자립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, 전국의 경우, 일상생활 기술(23.6%), 자기보호 기술(23.2%), 사회적 기술(13.6%)순으로 높으나 경남은 자기보호 기술(30.0%), 사회적 기술(21.7%), 일상생활 기술(13.2%) 순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

### 4. 자립준비청년 대학 진학 현황

☑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유형을 살펴보면, 전국적으로 2년제가 46.5%로 가장 많은 대학 유형이고, 4년제가 33.3%, 3년제는 13.2%, 미입력은 6.7%, 비학위과정 0.3%로 나타남. 경남은 4년제가 42.9%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, 38.1%는 2년제, 3년제는 14.3%, 미입력은 4.8%로 확인됨



< 그림 6 > 양육시설 보호아동의 대학 유형